



대림동성당

(주보성인 : 바오로)

토요 미사	오후 3시 30분 (어린이)
미사	오후 7시 (토요일 저녁 주일미사)
주일 미사	오전 6시 (일반)
	오전 9시 (중고등부)
	오전 11시 (교중)
	오후 6시 (청년)
평일 미사	월·수·금·토 : 오전 6시
	화·수·목·금 : 오전 10시
	화·목 : 오후 7시 30분

사무실 TEL : 02-835-1814~5
(FAX : 02-835-1816)
주임신부(박성우 사도요한) TEL : 02-835-1813
보좌신부(이상민 바오로) TEL : 02-835-1812
수녀원 (한 말셀리나 수녀) TEL : 02-835-1810
(천 바울리나 수녀)
연령회회장(정기원 다마스) H.P : 010-5476-6833

고해성사	매 미사 후
병자영성체	추후 공지
유아세례	씩수달 두번째 토요일 오후4시30분(사무실에 신청)
혼인면담	매월 두번째 토요일 오전11시 (사무실에 신청)
집가개차 축복	사무실에 수시로 신청

07440 서울 영등포구 신길로1길 10(대림1동) / 홈페이지 <https://club.catholic.or.kr/daerim1004> / 이메일 daerim1004@hanmail.net

2022년 본당 사목 목표

“기쁜 소식을 전하는 공동체”

사랑하는 대림동 교우 여러분!

여러분 가정과 본당 공동체를 포함한 관내 주민 모두에게 좋으신 주님의 사랑과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지난 한 해동안 주님께서 풍성히 내려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며, 작년 우리가 목표한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를 만 들어가기 위해 헌신적으로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참으로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였습니다.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반복되는 미사 참여 인원수의 조정 및 본당 내 모든 활동 뿐만 아니라 모임조차도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코로나19로 인해 평범했던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소중했는가를 일깨워준 계기가 되었으며, 삶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를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넓은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히 계속하여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2티모 4,2 참조) 지금은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면서 신앙생활이 느슨해진 이들을 위해 좀 더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할 때입니다. 이웃에게 힘차게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먼저 복음화되어야 합니다. 자신이 변화되지 않고서는 다른 이를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복음화되기 위해 올 한 해 동안 다시 한 번 신앙의 기초를 튼튼히 다지도록 노력합시다.

이에 2022년도 대림동 본당 공동체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성경 말씀과 기도, 교회 가르침과 미사 그리고 사랑 실천을 통해 신앙에 대한 확신과 열정을 새롭게 하고, 주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공동체로 거듭나기를 희망합니다.

사랑의 주님께서 허락하신 올 한 해에도 코로나19의 종식과 더불어 우리 대림동 공동체의 모든 가정과 이웃에 주님의 은총과 자비가 가득하시길 함께 기도드립니다.

2022. 1. 1.

주임신부 박 성 우 사도요한

※ 주요 실천 사항 ※

1. 믿음의 삶

- 1) 성서 읽기 및 쓰기의 생활화
- 2) 남성, 여성구역 반모임 적극적 참여
- 3) 성체강복 적극적 참여(매월 첫목요일 매 미사 후)
- 4) 전 신자 월 1회 이상 평일미사 참여
- 5) 매월 첫 토요일 성모신심미사(묵주기도, 초봉헌, 양형성체)
- 6) 전 신자 1인 1단체 가입

2. 희망의 삶

- 1) 사순시기 십자가의 길 적극적 참여
- 2) 임산부 축복식

3. 사순의 삶

- 3) 사순, 대림 특강
- 4) 유가족 돌봄 프로그램 실시
3. 사랑의 삶
- 1) 교우간 서로 인사하기 운동(주일 매 미사 전)
- 2) 군중후원회 신설
- 3) 구역 방문 미사 실시
- 4) 구역 활성화를 위한 바자회(5월 중)
- 5) 단체 활성화를 위한 바자회(10월 중)
- 6) 성직자, 수도자 부모님 모임